

상품 배열에는 소비를 유도하는 '넛지'가 있다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편의점에 간 멍청한 경제학자

고석균 지음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킬러 교수는 저서 '넛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좋은 개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넛지는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즉 팔꿈치를 툭 치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위로 타인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의미다.

넛지를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세금을 내세요'라는 메시지만큼 고지서에 이런 글귀를 표기한다. '주민의 90% 이상이 세금을 냈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는 강요보다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데 효과적이다.

'넛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세상의 모든 넛지'를 알아야 소비를 똑똑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온라인 콘텐츠 마케터이자 관련 전문가인 고석균 씨가 펴낸 '편의점에 간 멍청한 경제학자'는 '넛지 이론'을 소비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매장 제품의 배열에도 소비를 유도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닐까'하는 호기심이 집필의 동기가 됐다고 밝힌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비난도 적지 않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서 글쓰기를 지속했다.

책은 편의점, 대형마트, 영화관, 카페 등에 어떠한 넛지가 숨어 있는지 사례를 분석한다. 리처드 킬러의 '넛지 이론'을 중심으로 기업의 '넛지 마케팅'을 파헤친다.

저자는 '2+1', '특가제품', '추천상품' 등과 같은 넛지에는 기업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를 구매하는 것은 온전한 소비자의 의지라기보다 비합리적 소비를 부추기는 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

'2+1' 또는 '4캔에 만 원' 같은 제품이 구미가 당기는 펄이상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필요 이상의 구매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재고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한 결과일 수 있다.

한 달간 무료라는 미끼 상품도 눈여겨봐야 한다. 등록은 쉽게 했지만 탈퇴를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다음 달부터 정가를 받



편의점 제품 배열은 소비를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현명한 분별이 필요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넛지가 존재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배가하는 좋은 넛지도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좋은 넛지' 가운데 남성 화장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변을 흘리지 않도록 한 발짝 더 다가오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사실, 이 같은 계몽 표어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힘들다. 더러는 반발심을 자극해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화장실 관리자가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었다. 결과는 놀랄게도 밖

로 새는 소변량의 80%가 줄어들었다. 이 방법은 이후 여러 나라에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좋은 넛지'의 사례가 됐다.

좋은 넛지든 나쁜 넛지든 그것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택을 유도하는 것일 뿐 결정은 소비자 몫이다. 그러므로 좋은 넛지와 나쁜 넛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우리가 넛지에 의해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들의 정원·1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래픽노블로 만나는 한나 아렌트의 삶과 사상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

켄 크림슈타인 글·그림, 최지원 옮김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이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나 아렌트(1906-1975)만큼 극적인 삶을 산 이도 드물다.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나 칸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동경했던 그녀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나치를 피해 독일에서 파리로, 다시 뉴욕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여기에 두 번의 결혼과 스승과 제자 사이이자, 불륜의 관계였던 18살 연상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의 사랑과 애증, 미국 프린스턴대 최초의 여성 정교수 등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학문적 성과도 두드러진다.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주목받은 그녀는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묘사한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키며 최고의 정치사상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사상은 난민, 인종차별, 소수자 문제, 극우주의 등에 직면해 있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나 아렌트의 삶과 사상을 그래픽노블로 만나는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이

나왔다. '뉴욕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만화를 기고하는 만화가이자 시카고 예술대 교수인 켄 크림슈타인이 펴낸 이 책은 '만화'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나 아렌트'의 저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문서 역할을 한다.

작품의 시작은 '다섯살의 한나'다. 매독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유대인이라는 출신 성분으로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녀는 14살 무렵 같은 고향 출신인 칸트의 거의 모든 저서를 섭렵했고, 답을 알 수 없을 때 칸트가 읽은 책까지 모조리 읽어내는 소녀였다.

마르부르크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평생의 연인이기도 했던 교수 하이데거를 만났

다. 나치에 반대했던 그녀와 달리 하이데거는 나치에 아부했고 '천재, 또는 협작꾼'으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르틴과 한나'라는 소설로 출간되기도 했다.

책에는 나치의 박해 속에 여러 나라를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면서도 정치적,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한나 아렌트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또 남편의 사촌으로 학문의 동반자이기도 했던 발터 벤야민을 비롯해 프로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장 뵈그다르 등 동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과 교류도 생생히 묘사돼 있다.

포브스 선정 '2018 최고의 그래픽노블'로 뽑혔으며 한국아렌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실대 김선옥 교수와 한나 아렌트의 마지막 조교인 제롬 콘이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더숲·1만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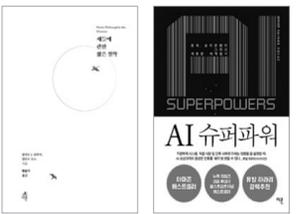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화살시편=시인 김형영은 1944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6년 '문학춘추' 신인 작품 공모, 1967년 문공부 신인예술포럼에 각각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인은 시작 50여 년의 지점에서 창작의 원형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인처럼 길을 걷고자 한다. 그의 시창조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은 성서적 상상력과 직관의 힘이다. 그는 성서 문장의 표현과 울림에 매력을 느끼고 그 파장을 활용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처음 시작하는 북유럽 신화=서양 고전을 전공한 후 서양 신화 연구에 몰두한 요시다 야쓰히코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북유럽 신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괴력의 신 토르, 악신 로키, 신들의 세상 아스가르드와 그곳의 문지기 헤임달 등은 과거엔 다소 낯설었으나 서양 고전은 물론 현대의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창작의 배경으로 폭넓게 차용되며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북유럽 신화 속 이름들이다. <책비·1만6000원>

▲새물결에 관한 짧은 철학=새를 사랑한 조류학자와 철학을 공부한 필리프 J. 뒤부아와 엘리스 루소가 함께 책을 썼다. 이들이 오랫동안 매일매일 새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얻은 결과다. 신중한 태도로, 고요한 침묵 속에서, 더없이 다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새들의 이야기이자 바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다. <이콘·1만8000원>



▲AI 슈퍼파워=구글 차이나 사장을 지낸 지은이 리카이푸는 현재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에 대한 날카롭고 현명한 통찰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30년 넘게 미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AI의 발전을 관찰해온 그의 전망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콘·1만3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좋아해=미스 반 하우트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된 '행복한 물고기'로 큰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이다. 미스 반 하우트의 그림은 강한 선과 강렬하면서도 선명한 색채가 특징이다. 아이들은 밝고 선명한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그림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트리앤북·1만2000원>

▲기린은 너무해=기발한 상상력과 감각적인 그림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 온 칼데콧 아너상 수상 작가 레인 스미스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조리 존이 '행운은 너무해'에 이어 '기린은 너무해'로 다시 한번 만났다. 불평을 하는 건 비단 펭귄뿐이었을까? 조리 존과 레인 스미스의 재미만 이야기가 한층 더 유쾌하게 펼쳐진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파랑이 싫어=파랑을 싫어하는 사자는 파란 하늘도, 파란 호수도 모두 싫다며 구석구석으로 도망친다. 갑자기 내린 파란 비에 놀라 몸을 피하는 사자와는 달리 여우, 새끼 오리, 개구리, 달팽이에 새들까



지, 동물 친구들은 모두 용기종기 파란 웅덩이 속에 모여 신나게 논다. 친구들은 사자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사자에게도 파란 비를 맞으며 같이 놀자고 한다. 과연 파랑이 너무나 싫은 사자는 친구들과 파랑 속에서 놀게 될까? <길벗어린이·1만3000원>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